

# 파주작가냉장고 운영 스토리-파주위키

파주위키에서 운영하는 파주작가냉장고 관리자의 후기이다.

- 작가냉장고 시작
- 냉장고가 사이트 이름이 된 이유

# 작가냉장고 시작

작년 '파주가자' 사이트를 만들때 작가 한 분에게 원고 4편을 받았다. 그 중 두편은 파주와 관련된 주제가 아니어서 게재를 못했다. 이전에도 다른 작가에게 원고를 받은 적이 있지만 개인의 생각이어서 '파주사람들'이라는 사이트에만 게재 한 적 있었다.

작년 12월에 두분 작가와 함께 송년모임을 하면서 작가들이 주제와 관계 없이 자유롭게 작품을 게시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 그 후 연말에 12일간의 프랑스 여행을 다녀 와서 2025년 1월부터 사이트 제작을 시작했다.

먼저 적합한 오픈소스 플랫폼을 찾기 위해 AI 비서 클로에게 추천을 요청했다. 클로는 미디어위키, 워드프레스, 북스택 등을 추천했는데, 그 중 북스택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미디어위키는 파주위키에서, 워드프레스는 파주가자 시스템에서 이미 사용 중이었다. 두 시스템은 각각의 특성이 있지만, 북스택은 책의 구조를 본떠 만든 시스템이라 직관적이었다. 또한 '책꽂이' 형식으로 작가별 분리가 가능하고 공개/비공개 설정이 용이해 온라인 작업에 적합했다.



2004년부터 독학으로 웹사이트를 설치하고 운영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인터넷 검색과 클로의 도움을 받아 설치를 시작했다. 1월 중순부터 틈틈이 여러 차례 설치를 시도했으나 빈 페이지 오류가 발생했다. 한 달여간 최선을 다했지만 실력의 한계로 성공하지 못해 포기를 고민했다. 그러나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성향 때문에 프리랜서에게 의뢰하기로 결정했다.

크몽 플랫폼에서 2022년에 작업을 맡겼던 업체를 다시 선정했다. 기본적인 설정이라 생각했지만 예상보다 견적이 높았다. 직접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점과 향후 새로운 시스템 구축 계획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했다.

용역업체는 계약 3일 만에 납품했고 시스템은 정상 작동했다. 이후 시스템 유지 관리를 위해 업체에 문의했고, 친절하게 자료를 보내주었다. 생소한 내용이라 추가 질문을 했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마무리 단계에서 업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내가 모르는게 많아 죄송하다고 했다. 70세에 가까운 나이로 이해가 어렵다고 설명하자 업체 직원이 "헉! 아닙니다. 대단하십니다.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세요"라고 답변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파주작가 플랫폼 시스템이 설치됐다.

# 냉장고가 사이트 이름이 된 이유

지난 1월부터 사이트를 구상하면서 작명을 시작했다. 새로 만드는 사이트는 파주를 소재로 창작하는 작가에게 온라인 으로 작업하고 독자와 커뮤니티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방향을 잡았다.

초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형식을 이용하여 작업 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검토했다. 클라우드 시스템은 필자가 오픈소스를 이용해 사용 중이었고 바로 적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저장된 작품을 공개하는 기능이 없어 포기했다.

새 사이트는 작가와 독자들이 서로 커뮤니티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한다는 방향이어서 포럼 기능의 사이트로 정의했다. 시작 초기에는 자연스럽게 forum.paju.wiki로 이름을 정했다.

그렇지만 포럼은 통상적으로 토론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 작품을 공개하고 구독하는 기능의 의미가 부족해서 다시 고민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파주작가 네트워크, 파주위키 작가스토리, 파주위키 작가서고, 파주위키작가회의, 파주위키작가책장, 파주위키작가동네 등을 검토했다.



파주위키 창작지원 플랫폼

## 파주작가냉장고

당신의 작품을 기록으로 남겨 드립니다

- 파주작가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파주위키 서비스
- 창작물을 수정하거나 독자와 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
- 당신을 아는 독자가 늘 방문하는 사이트

문의 pajuwiki@gmail.com

어느 날 아침 운동하면서 이번 시스템은 작품을 온라인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완성된 작품을 공개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기능은 책장, 서재, 보관소, 저장소, 아카이브 등의 용어로 압축할 수 있었다.

인터넷 사이트인 특성을 감안하여 이름은 특이하거나 고유해야 한다. 사이트 이름을 검색할 때 일반적인 명칭은 기존에 운영되는 유명 사이트가 상위권에 검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책장이나 서재 등처럼 흔한 명칭은 제외해야 했다.

처음 출발하는 사이트이면서 검색까지 유리한 '냉장고'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작가가 작업 중인 글이나 완성된 글을 보관하는 '파주위키작가냉장고'를 사이트 이름으로 정한 것이다. '냉장고'가 되면서 점잖지는 않지만 혼동되지 않는 이름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몇 일이 지나서 '파주위키작가냉장고'라는 이름을 실제 사용하는 작가들이 좋아할지 생각을 해보았다. 작가들의 작품을 식재료나 음식으로 비교하여 작품의 가치를 떨어 뜨리는 것이 아닌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대안으로 '밀리의 서재'를 딴 '파주위키작가서재'로 만들었다.

필자는 두 개의 명칭을 매달 만나는 독서토론회 모임에서 의견을 들었다. 이 토론회는 40여 년의 역사와 다양한 계층의 회원들로 구성됐다. 대부분의 회원이 냉장고에 손을 들어줬다.

사이트 이름을 '파주위키작가냉장고'라는 명칭으로 운영을 시작했다. 그러나 홈페이지 메인에 표시된 메뉴를 보니 글자 수가 많아서 가독성이 떨어졌다. '위키'라는 두 글자를 빼고 '파주작가냉장고'로 수정했다.

원래 '파주위키작가'는 파주위키 사이트에 작품을 게시하는 작가를 의미했다. 메뉴의 가독성을 올리기 위해 '파주작가'로 수정된 것이다. 일반적인 파주의 작가인 '파주 작가'라는 단어와 구분하기 위해 '파주작가'처럼 '파주'와 '작가'를 붙여 쓰는 것으로 정의했다.

'파주작가냉장고'의 이름은 검색이 용이하고 기억하기 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이름은 작가가 냉장고에 작품을 저장하고 공개하는 과정이나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 다만,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다시 찾아 보거나 독자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파주작가냉장고'는 오픈된 소스를 무료로 사용하여 기능상 많은 제약이 있다. 부족한 기능이지만 '이름' 덕분에 파주적인 콘텐츠가 더 많이 창작되고 더 많은 독자가 구독하는 사이트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